

“남해안권 중심도시 도약... ‘일류 순천’ 완성의 해”

병오년 새해설계



노관규 순천시장

“2026년은 하늘엔 우주, 도심엔 문화, 대지엔 그린바이오를 입혀 순천의 미래를 짝 채우고 준비해 온 변화들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습

우주·바이오·문화 콘텐츠 고도화

코스트코·호텔 유치 등 정주 개선

해양치유 벨트·복지 안전망 강화

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6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산업 질서 재편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천은 도시의 체질을 바꾸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며 “올해는 그 방향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 ‘일류 순천’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의 핵심으로 ▲우주·방산 ▲문화콘텐츠 ▲그린바이오 등 3대 미래 산업의 고도화를 꼽았다.

먼저 해룡·광양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로 사천(항공), 고흥(발사), 대전(연구)을 잇는 우주·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내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공장에서도 누리호 6호기 조립이 시작돼 순천의 첫 인공위성인 ‘순천 SAT’이 탑재될 예정이며, 미래도심항공(UAM) 터미널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우주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도심은 ‘K-디즈니’를 목표로 하는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창작 생태계 조성과 남해안권 콘텐츠 인재 양성 거점 구축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며, 승주 일대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그린바이오 기지를 완성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른다. 광주·전남 최초로 들어

서는 ‘코스트코’ 입점을 본격화해 신대·연향 생활권을 남해안권 최대 소비·유통 중심으로 키운다.

이와 함께 체류형 관광의 핵심인 5성급 이상 프리미엄 특급호텔 유치와 남해안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에도 속도를 내 2026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태 도시의 위상도 강화를 위해 순천만과 화포·와온해변을 잇는 ‘해양치유벨트’와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정원 도시를 완성하고,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기초 지자체 최초 회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순천형 자연기반해법’을 공유한다.

또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북부 복합문화시설 조성 ▲연향권 지하주차장·공원화 사업 ▲오천지구 학교 용지 활용

▲신대·선월 미래형 복합타운 조성 등 권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1조5천669억원의 예산을 확보, 역대 최대 재정 규모로 미래 투자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밖에 청년 진화 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2천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어르신 돌봄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시정으로 지역민의 존중받는 노후를 조성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중앙 정치 논리나 특정 진영에 기대지 않고, 오직 순천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자강도시(自強都市) 순천의 길을 28만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정기기자

“기부가 빚어낸 기적”...곡성군 지방소멸 극복 모범

고향기부금 11억6천만원 달성

‘소아과를...’ 목표액 3억원 훌쩍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난제를 풀어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11억6천만원을 기록, 당초 목표였던 1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성과는 지정기부 사업인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의 2025년 운영 목표액(3억원)을 무난히 넘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치밀한 단계적 접근 덕분으로 군은 지난 2024년 ‘시즌 1’을 통해 출장진료를 처음 도입하며 의료 접근성 개선의 물꼬를 텄다.

당시 확인된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수요는 2025년 ‘시즌 2’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진료 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기부금으로 문을 연 ‘매일 만나는 소아과’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개원 7개월 만에 누적진료 인원이 3천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곡성군의 전체 소아·청소년 인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실상 지역 내 거의 모든 아이가 혜택을



곡성군 ‘매일 만나는 소아과’에서 어린이가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곡성군 제공〉

누린 셈이다.

아픈 아이를 업고 인근 대도시 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부모들의 고충이 해결되자, 0~6세 영유아의 병원 방문율 등 건강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이번 성과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의 가장 아픈 곳을 치료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부자들은 자신의 돈이 ‘아이들의 건강’이라는 확실한 목적에 쓰인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었다.

군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영역을 확장하며, 이따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빨래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소아과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부자와 지자체, 주민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 제값형 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시, ‘임신 준비 부부’ 최대 3개월 엽산제 지원

광양시는 6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임신 준비 단계의 부부에게 필수 영양제인 엽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 전부터 임신 초기까지 부부가 함께 엽산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그동안 임신부 등록 이후에만 지원되던 것을 임신 전 단계로 확대한 조치다.

엽산은 태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면 신경관 결손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여성 만 49세 이하)다. 시는 남녀 모두에게 각각 3개월분의 엽산제를 연 1회 무료로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전국 우수 초등부 축구팀 31개 팀, 연인원 9천여명의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는다. 사진은 지난해 장흥을 찾은 축구팀이 훈련하는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군,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 9천명 집결

축구 31개 팀...‘과학적 훈련’ 지원

장흥군은 6일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전국 우수 초등부 축구팀 31개 팀, 연인원 9천여명의 선수단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장흥을 찾는다”고 밝혔다.

군은 손님맞이를 위해 심천공원축구장, 실내

체육관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숙박·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동계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군은 참가 선수들에게 체력 측정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과 함께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수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도내 유일의 ‘전남도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한 차별화된 지원이 눈길을 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훈련단 유치가 겨울철 비수기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여수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19일까지...4개 분야 10억 투입

여수시는 6일 “농업 신기술 도입과 확산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품질 유기농 쌀 자용교환 등 식량작물 분야(3종)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등 소득작목 분야(6종) ▲환경장제 저감 미생물 활용 등 과학영농 분야(2종)

▲돌산갯재배단지 땅심 높이기 등 지역 특화 분야(8종)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관할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돌산갯연구 분야는 돌산읍 또는 화양면 산업팀에 별도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생계급여 최대 12만7천원 확대

추가 공제금 40만원→60만원

담양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6.5% 상승 조정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기존 월 195만1천원에서 올해 월 207만8천원으로 인상돼, 최대 월 12만7천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추가 공제금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1천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포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77종 560여대 지원·노후 기계 교체도

보성군이 기상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한다.

보성군은 6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경작지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이들은 관내 4개 임대사업소(본점·별고·북부·남부)가 보유한 77종 560여대의 모든 농기계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사진〉

군은 지난해에도 해당 정책을 통해 총 8천877농가에 약 1억3천600만원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제공,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은 지속되는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급등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아울러 군은 임대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투입,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고 신형 장비를 구입해 농작업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가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